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Differences in Time Deficit and Tim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Child Care Time of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박사수료 박 은 정

교 수 이 성 립*

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s, Sungkyunkwan Univ.

Doctoral Candidate : Park, Eun Jung

Professor : Lee, Seong-L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typology of child car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care types, and analyze the differences in time deficit as well as time satisfaction by the types of child care for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data source for this research was the 200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Dual-earners aged 20 to 59 years completed 1,568 time diaries, which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cluster analysis, and ANOVA analysis.

Child care time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in the three categories of child care, household work sharing and leisure sharing for both males and females respectively. Three types for husbands were named "vulnerable", "household work-child care predominant" and "leisure predominant". The three types for wives were named "vulnerable", "household work-child care oriented" and "household work-child ca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depended on age, education, weekly working hours, gender role of husbands and age, weekly working hours of wives. The vulnerable type of wive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time deficit.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on child care and various types of education as well as programs we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 미취학자녀(preschool children), 맞벌이 부부(dual-earner couples), 자녀양육시간(child care time), 시간부족(time deficit)

* Corresponding Author: Lee, Seong-Lim, Department of
Consumer &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Tel: +82-2-760-0521, E-mail: clothilda@skku.edu

I. 서론

인간은 전생애에 걸쳐 가족 및 타인 그리고 환경과 끊임 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과 발달을 이루어나간다(Yoon & Lee, 1993). 특히 영유아기에 있어서 다양한 주변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로서 영유아는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신체, 감각, 운동 발달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환경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인지능력 및 다양한 정서반응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보다 확대되고 다양한 행동양식을 형성한다(Kim & Yoo, 2009). 따라서 이 시기에 자녀양육참여는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이타심과 관대함을 증가시키고,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Lamb, 1981; Choi, 1993; Jung & Kim, 2003). 또한 영유아기에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은 아동기 이후 개인 및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취학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특히 중요하다.

최근 자녀양육은 자녀의 신체적·비신체적 돌봄 외에 미래세대에 투자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 시간(parental time)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는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직·간접적 시간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는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Lee & Jung, 2005; Osterbacka, Merz, & Zick, 2012).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가사활동은 자녀의 과업수행역할능력 및 미래세대 부모로서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협조적 행동을 인식시킬 수 있다(Lee & Kim, 2009; Craig & Mullan, 2010; Osterbacka, Merz, & Zick, 2012).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자녀의 육체적·정서적 기능강화와 복지 등을 촉진시켜 준다(Shaw & Dawson, 2001; Osterbacka, Merz, & Zick, 2012). 즉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부모 및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대감, 단란함, 사회적 성취를 줄 수 있으며 자녀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양육은 더욱 중요하다(Orthner & Mancini, 1991; Shaw & Dawson, 2001; Craig & Mullan, 2010; Cracia, 2012).

자녀양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는 일-자녀양육 문제에 크게 부딪히게 된다.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가족보다 일에 치우쳐 일과 가족생활이 불균형적이고 여성의 77.9%와 남성의 53.6%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 문제를 지목하였다(Yonhapnews, 2011). 동일한 대상의 조사에서 부부가 지각한 자녀돌봄 충분도는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인의 경우는 남편의 자녀돌봄 충분도가 자신의 자녀돌봄 충분도보다 낮다고 응답하였고 자녀돌봄 충분도는 근로시간, 통근시간, 연장근로 등의

세 가지 직장변수로부터 부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연장근로가 자녀돌봄 충분도에 가장 큰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Cho & Seo, 2009). 또한 장시간 노동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확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없고, 아동이 방과 후 집에 혼자 있을 경우 부모의 감독 없이 TV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등의 미디어이용으로 우울, 학업성적 하락 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Pääkkönen, 2008).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재로 아동의 무분별한 식습관과 자극적인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의 식품선택은 자녀의 비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awley & Liu, 2012).

따라서 맞벌이가구에 대한 부모-자녀의 부모권과 자녀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비시장노동에 속하는 자녀양육의 시간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가시화시켜야 한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간접적 자원의 시간투자를 간과하면 부모 혹은 잠재적인 부모가 직면하는 자녀양육부담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다음세대의 인적자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 자원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Yoon, 2010). 그동안 자녀양육은 금전투자행동이 부각되어 왔고 경제적 비용에 초점을 둔 자녀양육의 경제적 준비 및 심리적 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Kim, 2010; Song, 2011). 그러나 최근 경제학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금전투자뿐만 아니라 시간투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무보수 노동시장에 할애되는 자녀양육시간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확인해야 함을 주장했다(Folbre, 2008; Yoon, 2010).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양육시간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 특히 모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시간과 부의 자녀양육 역할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부모의 자녀양육시간 및 관련변수를 파악하거나 자녀양육시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Huh, 1994a, 1994b, 1997; Kim, 2003; Sung, 2006; Yoon, 2010; Song, 2011)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자녀양육시간에 관한 연구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자녀돌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자녀양육시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자녀돌봄노동으로 인식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Kim et al., 2010). 이는 시간조사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자녀양육활동의 명확한 개념과 포함된 활동의 차이 때문에 자녀와 함께한 여가시간의 경우 각자의 개인 여가시간과 혼합되어 나타나거나 개인의 인지차이에서 자녀돌봄노동 혹은 반여가 행동으로 처리되어 자녀양육시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Guyan, Hurst, & Dearnley, 2008; Yoon, 2010).

그러나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자녀돌봄시간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까지 포함한 자녀양육시간을 파악

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parental time)을 자녀양육시간으로 확장하여 자녀양육시간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어린 자녀일수록 아이를 돌봐주는 양육자나 돌봄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이 시기에 다양한 주변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로서 부모의 절대적인 양육이 필요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영유아의 애착형성은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취학자녀에 초점을 맞춘 자녀양육시간을 파악하고자 한다. 맞벌이부부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라는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를 기준으로 자녀양육을 유형화함으로써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시간사용의 결과변수로서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를 자녀양육 유형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시간사용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의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자녀양육시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자녀양육시간에 관한 기존연구는 미취학자녀의 존재유무와 취업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자녀가 어릴수록 시간집약적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의 한정된 시간은 한 가지 활동에 시간을 사용하면 다른 활동에 사용할 시간이 감소하는 제로섬(zero-sum)의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기혼취업자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확보에 어려움이 크다(Kim & Park, 2012). 따라서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자녀양육시간에 관한 연구는 생활시간 실태를 분석하여 자녀양육시간을 파악하거나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분석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자녀양육시간의 기존연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의 활동분류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자녀양육시간연구의 자료는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Lee and Lee(2007), Han and Yoon(2009)은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2004년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사용실태를 파악한 후 자녀양육시간을 살펴보고 Yoon(2010), Song(2011)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시간을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자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신체적 돌보기, 놀아주기, 공부 봐주기 등을 자녀양육시간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부인이 남편보다 자녀양육시간이 더 길고 기혼여성은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자녀양육에 적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시간사용조사의 한계로 자녀양육에 포함된 행동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즉 생활시간조사에서 초·중·고등학생의 보살피기 중분류의 경우 미취학자녀 보살피기처럼 정확히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자녀의 발달단계별(아동기, 청소년기) 자녀양육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시간조사가 “함께 한 사람”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 자녀와 직접적 상호작용의 돌봄 행동에 대한 협의의 자녀양육시간이 분석되었다. 즉 돌봄 ‘행동’ 대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parental time)’을 자녀 돌봄노동으로 확장하여 분석해야 자녀돌봄과 개인 여가의 분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Guyan, Hurst, & Dearney, 2008).

Yeung et al.(2001)은 1997년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하였다. 자녀양육활동을 개인유지활동, 놀이활동, 학습관련활동, 가사활동, 사회적활동, 기타활동으로 구분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중보다 주말에는 자녀양육참여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돌봄과 놀이시간은 감소하지만 학습관련활동 및 사회적활동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Huh, 1994a; Kalenkoski, Ribar, & Stratton, 2006; Ahn, 2013)가 있다. Huh(1994a)은 부의 자녀 양육참여시간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가능시간가설, 경제적 효율가설, 역할관념가설을 도입 그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부와 모의 근로시간의 융통성, 모의 임금률, 부와 자녀의 연령이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용가능시간가설의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되었고 경제적 효율가설도 부분적으로 인정되었지만 역할관념가설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음을 밝혔다.

Kalenkoski, Ribar, and Stratton(2006)은 가족구조가 자녀양육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구조를 양부모, 동거부모, 한부모로 구분하여 미국(ATUS) 및 영국(UKTUS)의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양육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부모의 자녀양육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시간배분론, 성역할관념에 기초를 두고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 한부모보다 양부모 또는 동거부모가 더 많은 자녀양육시간을 소비하였으며 가설 효과 검증 모델이 잘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시간에 대표적인 경험적 연구는 인적자본론이다. 부모시간(parental time)은 미래 세대 자녀의 잠재적인 능력

과 사회적 성취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ianchi & Robinson, 1997; Hofferth & Sandberg, 2001; Sayer, Gauthier, & Furstenberg, 2004; Chalasoni, 2007).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는 낮은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투입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지하여 시간배분에서 자녀양육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Yoon, 2010; Song, 2011). 이들 연구는 자녀양육시간을 자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행동의 자녀돌봄시간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보낸 동시행동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한 양육행동까지 포함한 활동을 자녀양육시간으로 규정하였다(Fedick, Pacholok, & Gauthier, 2005). 또한 국외의 생활시간조사에 '함께 한 사람'의 분류항목이 세분화되어 자녀발달단계별(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양육시간분석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무보수 노동의 자녀양육에 대한 시간자원의 중요성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자녀양육시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국외와 달리 시간사용조사의 한계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실행되어 자녀양육시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시간을 광의의 개념으로서 자녀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주행동과 자녀와 함께 보낸시간의 동시행동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한 활동의 가사 및 여가공유시간을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기혼자의 자녀양육시간은 관련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노동시간, 성역할태도 등이 있다. 성별은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수로 기혼여성의 시간이 남성보다 길어 자녀양육시간의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Yeung et al., 2001; Han & Yoon, 2009; Yoon, 2010; Song, 2011). 이는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도 부인의 자녀돌봄시간이 남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Bryant & Zick, 1996; Lee & Lee, 2011) 기혼취업여성의 이중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령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참여도가 증가하고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높게 나타났다(Kim, 1984; Yoon & Lee, 1993; Huh, 1994a). Huh(1997)는 부인과 남편의 육아노동시간 결정요인 연구에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육아시간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Song(2011)은 자녀돌보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취학자녀와 취학자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취학자녀와 취학자

녀가구 모두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투입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자녀양육에 대한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주목받는 변수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시간이 길게 나타난 점은 일치한다. Hofferth and Sandberg(2001)는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하였는데 모의 학력수준은 자녀양육시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Chalasoni (2007)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자녀양육시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자녀양육시간에서 부모의 젠더차이가 나타났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좁혀진다고 밝혔다. Song(2011)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는 신체적 돌보기와 놀아주기 시간이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취학아동의 경우는 공부 봐주기 시간이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밝혀졌다.

직업을 보면 Jang(1994)은 남성의 직업에 따른 아버지 역할수행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직종사자의 아버지 역할수행정도가 높는데 비해 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종사자 집단은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Song(2011)은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한 결과 1999년의 경우에는 서비스판매직과 기능 및 기계조작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농어업이나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비하여 자녀돌보기시간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2009년에는 기능 및 기계조작 종사자들의 자녀돌보기 시간이 농어업이나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였다.

소득을 보면 Kooreman and Kapteyn(1987)의 연구에서 소득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소득이 높으면 어머니의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Guryan, Hurs, and Kearney(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소득과 자녀양육시간은 강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Yeung et al.(2001)은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양육활동을 개인유지활동, 놀이활동, 학습관련활동, 가사활동, 사회적활동, 기타활동으로 구분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소득은 주중 자녀와 함께 한 놀이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시장소득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을 조사한 Nam and Yoo(2006)의 연구에서는 기혼취업여성의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시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Huh(1994a)는 부의 자녀양육참

여시간의 결정요인연구에서 모의 임금률은 자녀의 양육시간에 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임금이 높은 모가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모의 자녀양육시간이 감소하게 되어 그의 배우자인 기혼부의 자녀양육에의 책임이 증가, 참여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동시간은 자녀양육시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기혼취업자의 경우 수입노동시간은 자녀양육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자녀양육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육아시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Bianchi(2000)는 모의 노동시간에 따른 자녀의 양육시간을 조사한 결과 모의 노동시간은 자녀양육시간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이는 부의 노동시간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Yeung et al.(2001)은 자녀와 함께한 활동을 개인유지활동, 놀이활동, 학습관련활동, 가사활동, 사회적활동, 기타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주당노동시간은 다양한 활동 중 놀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 and Choi(2002)는 성인을 대상으로 육아시간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유급노동은 육아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육아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이 상충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성역할태도는 젠더론적 관점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변수로 시간배분, 가사 및 자녀양육시간, 여가시간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수 또는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여러 관점 중의 하나로 그 주장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 Yoon and Lee(1993)는 부모의 성역할유형과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성역할유형은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성역할유형이 양성성이거나 여성성일 때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다고 밝혔다. Huh(1994b)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비전통적 관념 또는 태도를 가질수록 육아시간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부인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자녀양육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노동시간 외에 가족형태(Hofferth & Sandberg, 2001; Kalenkosik, Ribar, & Stratton, 2007; Chin, 2008), 조부모 동거여부(Ahn, 2013)가 다루어졌다.

3.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

체계적 접근법에서 산출에 해당되고 시간배분이나 시간사용의 결과 변수인 시간부족감, 시간사용만족도는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어느 정도, 어떠한 행동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하루 24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배분하

는 객관적인 시간배분과는 다른 차원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개인이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로서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Kim, 2012).

시간부족감은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로서(Kim, 2012), 특히 시간제약을 많이 받는 집단인 기혼자 및 취업자의 시간사용 및 배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다루어져 왔다(Cha, 2006; Cha, 2008; 김외숙 등, 2010; Kim, 2012). Cha(2006)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시간부족(time deficit)에 대한 인지정도 및 그 이유를 밝혔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90%가 항상 또는 가끔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과 집안일(52.1%), 다음은 일 때문(39.1%)으로 나타났다. Cha(2008)는 기혼취업자를 대상으로 일, 가족, 여가시간의 배분유형에 따른 시간압박수준(time pressure)을 살펴보았다. 기혼 취업자들의 시간배분양상은 일여가형, 일중심형, 가족중심형, 여가중심형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사용유형 중 일중심형이 나머지 유형보다 시간부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0)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식사, 가사노동 및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 한 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혼자의 가족공유시간 유형이 비가족공유형, 가족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가족공유형의 네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유형별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형은 가사노동우위형이고 가장 적게 느끼는 유형은 가족여가우위형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Kim(2012)은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일-생활 유형을 통해 시간부족감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시간부족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문항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주제에 따라 시간부족감을 파악한 것으로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시간부족감이나 시간압박감의 용어로 사용한 차이만 있을 뿐 시간부족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부족감의 용어를 사용하고 시간부족감을 개인이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시간사용의 주관적 측면으로서 시간사용만족도는 자신이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정도로(Kim et al., 2010) 학생, 주부, 성인, 맞벌이부부 등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왔다. Kang and Kim(2005)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리적 시간, 학업 시간, 가사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 전체 생활시간사용 등 5개 영역, 총 19개 영역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전체 시간사용만족도는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이며 대부분에서 교제활동 시간이 가장 높는데 비해 문화활동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밝혔다. Park

and Baik(1997)은 주부를 중심으로 일상적 자녀돌보기, 자녀학습, 가내가사노동, 가외가사노동, 가내여가, 가외여가 시간사용의 영역으로 세분화 한 후 각 영역별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연구(Park & Baik, 1997; Kang & Kim, 2005)는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시간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목적에 따라 행동을 분류하여 시간사용만족도를 생활시간 영역별로 조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문항을 이용하여 시간사용을 유형화 한 후 각 유형별 시간사용만족감의 차이를 파악한 연구(Kim et al., 2010; Kim, 2012; Kim, 2012)가 있다. Kim et al.(2010)은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가족공유시간유형에 따른 시간사용만족감을 살펴보았다. 가족공유시간은 비가족공유형, 가족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가족공유형의 네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가족공유시간유형 중 가족여가우위형이 다른 유형보다 시간사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의 만족감은 다른 어떤 활동에 있어서보다 함께 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관점에서 기혼자의 여가공유대상을 유형화한 후 시간사용만족감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로 개인중심형, 가족중심형, 타인중심형, 취약형의 유형 중 타인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2). 그리고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일-생활 유형 연구를 통해 시간사용만족감의 차이를 파악한 연구(Kim, 2012)가 있다. 이와 같이 시간배분이나 시간사용 유형에 따라 시간사용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시간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로 시간사용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 시간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 시간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 시간 유형별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가구의 10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10분 간격으로 구성된 시간일지에 응답자가 자기기입방식으로 행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이며 시간일지는 2일 동안 기입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비농가 맞벌이가구이다. 분석된 시간일지는 1,568부(남편 784부, 부인 784부)이고 분석대상 행동은 자녀돌보기시간의 경우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포함하였고 미취학자녀와의 가사공유시간과 여가공유시간은 '주행동'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돌보기, 가사노동, 여가를 각각 통계청의 행동분류를 기준으로 중분류의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대분류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세 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2009년 처음으로 '함께 한 사람'의 항목에 대해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 및 친척, ⑤ 기타로 구분된 것 중 ③ 미취학자녀와 함께 한 시간만을 포함시켰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일차적으로 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활시간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 PWSA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자녀양육시간 유형화를 위해 자녀돌보기와 가사공유 그리고 여가공유시간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군집간의 차이검증 및 유형별 특성 그리고 유형별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남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노동시간이다. 이 중 노동시간은 시간일지 조사 당시 지난 1주일 동안 주업 및 부업을 합한 값으로 노동시간은 평균시간을 사용하였다. 소득은 개인 월평균소득이다.

성역할태도는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1점) ~ '매우 반대한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부족감은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68)

Variables	Classification	Husbands	Wives
		Frequency(%)	Frequency(%)
Age	20-29	36(4.6)	100(12.8)
	30-39	546(69.6)	594(75.8)
	40-49	196(25.0)	88(11.2)
	50-59	6(0.8)	2(0.3)
Education	middle school	18(2.3)	14(1.8)
	high school	314(40.1)	336(42.9)
	college	406(51.8)	406(51.8)
	over graduate school	46(5.9)	28(3.6)
Job type	managerial · professional	192(23.9)	246(31.4)
	clerical	694(17.4)	208(26.5)
	service · sales	645(16.2)	212(27.0)
	simple skilled etc	1,701(43.0)	118(15.1)
Monthly income (in thousand won)	under 1,000	28(3.6)	324(41.3)
	1,000~1,999	266(33.9)	278(35.5)
	2,000~2,999	292(37.2)	116(14.8)
	over 3,000	198(25.3)	66(8.4)
Weekly working hours (unit: hours)	M(S.D.)	54.31(14.38)	41.13(17.78)
Gender role attitude	traditional	316(40.3)	160(20.4)
	modern	468(59.7)	624(79.6)
Time deficit	sometimes · very often	712(90.8)	734(93.6)
	never · seldom	72(9.2)	50(6.4)
Time satisfaction	satisfaction	218(27.8)	254(32.4)
	normal	412(52.6)	386(49.2)
	dissatisfaction	154(19.6)	144(18.4)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전혀’(1점) ~ ‘예, 항상’(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사용만족도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만족한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IV. 연구결과

1.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

맞벌이부부의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의 점수 분포는 <Table 2>와 같다. 남편의 경우 자녀돌봄시간과 가사공유시간은 평균 49분, 39분이고 중앙값은 20분으로 동일하다. 여가공유시간은 평균 28분으로 세 영역 중 가장 낮으며 중앙값은 0분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자녀돌봄이 평균 127분, 중앙값은 110분으로 나타났고 자녀와 함께한 가사활동은 평균 106분, 중앙값은 90분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한 여가활동은 평균 34분으로 다른 영역별 시간보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Child Care, Household Work Sharing, Leisure Sharing (Unit: Minute)

Classification	Activity	Sample size	Mean	S.D.	Median value
Husbands	child care	784	49	73	20
	household work sharing	784	39	58	20
	leisure sharing	784	28	56	0
Wives	child care	784	127	107	110
	household work sharing	784	106	88	90
	leisure sharing	784	34	58	0

Table 3. Frequency and Standardized Scores by Child Care Time Type of Dual-earner Couples

Classification	Type	Frequency	%	Child care	Household work sharing	Leisure sharing	Code
Husbands	1	632	80.6	26	22	11	- - -
	2	76	9.7	223	167	36	+ + +
	3	76	9.7	68	57	167	+ + +
Wives	1	417	53.2	57	49	30	- - -
	2	58	7.4	392	319	31	+ + -
	3	309	39.4	172	144	40	+ + +

상대적으로 적으며 중앙값은 0분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비교할 때 세 영역 모두 부인의 자녀양육시간이 더 길며 남편과 부인 모두 여가공유시간이 세 영역 중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각각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고, 부인의 여가공유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참조).

먼저 남편의 유형 1을 <Table 3>에서 제시된 평균점수와 비교해 보면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이 각각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인다. 이를 부호로 표시하면 "- - -"로 나타낼 수 있어 "취약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전체 분석일지 중 80.6%가 이 유형에 속하고 세 유형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해당된다. 이 유형의 자녀양육시간은 평균 59분이다.

유형 2와 유형 3은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 각각이 평균값보다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점수부호로 보면 모두 "+ + +"로 표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형 2는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이 다른 유형보다 특히 많은 특징이 있으므로 "가사양육우위형"으로 명명하고, 유형 3은 여가공유시간이 나머지 유형보다 많은 특징을 보이므로 "여가우위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여가공유시간은 평균 167분으로 다른 유형보다 특히 많고, 전체

분석대상자 중 9.7%가 이 유형에 속한다.

부인의 경우 유형 1을 평균점수와 비교해 보면,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가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인다. 이를 부호로 나타내면 "- - -"이므로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53.2%로 세 유형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 이 유형의 자녀양육시간은 평균 136분이다.

유형 2의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은 각각 392분, 319분으로 평균보다 많고 여가공유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특징이 있다. 특히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은 세 유형 중 가장 길어 평균보다 각각 3.1배, 3배 많다. 따라서 이 유형을 "가사양육중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7.4%로 세 유형 중 가장 적다.

유형 3은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 모두 평균보다 많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점수부호로 나타내면 "+ + +"로 표시할 수 있으나 여가공유시간이 세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은 평균보다 1.4배정도 많아 "가사양육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 유형에는 39.4%가 속한다.

이상과 같이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을 성별로 세 집단씩 유형화한 결과 남편과 부인은 취약형에 속하는 분포가 가장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그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편의 경우 80.6%의 분포를 차지하는데 비해 부인은 53.2%로 남편의 분포가 1.5배 더 높다. 또한 남편

Table 4. Analysis of Activities by Child Care Time Type of Dual-earner Couples (Unit: Minute, S.D.)

Classification	Activity	Type	M(S.D.)	F
Husbands	child care	vulnerable	26(32)c	683.412***
		householdwork · child care predominant	223(89)a	
		leisure predominant	68(60)b	
	household work sharing	vulnerable	22(30)c	490.385***
		householdwork · child care predominant	167(76)a	
		leisure predominant	57(44)b	
leisure sharing	vulnerable	11(22)c	817.365***	
	householdwork · child care predominant	167(44)a		
	leisure predominant	36(69)b		
Wives	child care	vulnerable	57(35)c	1206.344***
		householdwork · child care oriented	392(116)a	
		householdwork · child care	172(54)b	
	household work sharing	vulnerable	49(33)c	1054.746***
		householdwork · child care oriented	319(93)a	
		householdwork · child care	144(48)b	
leisure sharing	vulnerable	30(57)	2.455	
	householdwork · child care oriented	31(51)		
	householdwork · child care	40(60)		

*** $p < .001$

은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 모두 전반적으로 많으나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이 특히 많은 가사양육우위형과 여가공유시간이 평균보다 6배 많은 여가우위형이 나타난 반면 부인은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이 특히 많은 가사양육중심형과 자녀돌봄, 가사공유시간이 많고 여가공유시간이 평균과 유사한 가사양육형이 나타난 차이가 있다.

<Table 4>는 남편과 부인 각각의 3개 유형이 자녀양육 변수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이다. ANOVA 분석을 통해 각 변수에 대해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인의 여가공유시간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남편의 경우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은 세 유형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고, 부인의 경우에는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2.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을 유형화한 후 각 유형에 따라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노동시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성역할 태도의 심리적 변수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과 유형과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유형에 따른 노동시간과 성역할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먼저 남편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라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성역할태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 소득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취약형의 분포가 가장 높은 공통점이 있으나 4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약형(86.1%)에 속하는 분포가 가장 높고, 20대는 가사양육우위형(22.2%)에 속하는 분포가 높았다. 이는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연령 또한 어리며 자녀의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커져 자녀양육참여가 증가하고, 또 젊은 아버지일수록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본 기존결과와 일치한다(Yoon & Lee, 1993; Huh, 1994a; Kim et al., 2010).

교육수준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약형에 속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여가우위형과 가사양육우위형에 속하는 분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자녀양육시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Table 5.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y Fathers' Child Care Time Type

(Unit: Frequency, %)

Variables	Classification	Vulnerable (N=632)	householdwork · child care predominant (N=76)	Leisure predominant (N=76)	X ² / F
Age	20~29	24(66.7)	8(22.2)	4(11.1)	12.119*
	30~39	434(79.5)	57(10.4)	55(10.1)	
	Over 40	174(86.1)	11(5.4)	17(8.4)	
Education	high school	282(84.9)	24(7.2)	26(7.8)	11.903*
	college	320(78.8)	44(10.8)	42(10.3)	
	over graduate school	30(65.2)	8(17.4)	8(17.4)	
Job type	managerial · professional	146(76.0)	25(13.0)	21(10.9)	11.708
	clerical	118(75.6)	16(10.3)	22(14.1)	
	service · sales	124(86.1)	12(8.3)	8(5.6)	
	simple skilled etc	244(83.6)	23(7.9)	25(8.6)	
Monthly income (in thousand won)	under 1,000	21(75.0)	5(17.9)	2(7.1)	4.712
	1,000~1,999	221(83.1)	24(9.0)	21(7.9)	
	2,000~2,999	230(78.8)	28(9.6)	34(11.6)	
	over 3,000	160(80.8)	19(9.6)	19(9.6)	
Weekly working hours(mean)		55.08a	49.00b	53.22ab	6.383**
Gender role attitude(mean)		2.61ab	2.72a	2.39b	4.742**

* $p < .05$, ** $p < .01$

된 결과와 일치한다(Yeung et al., 2001; Chalasoni, 2007; Song, 2011).

각 유형별 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노동시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취약형이 55시간으로 가사양육우위형(49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취약형의 경우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고 가사양육우위형은 취약형보다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녀돌봄, 가사공유 등을 보다 많이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자녀 양육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친 선행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Yeung et al., 2001; Huh, 1994a; Yoo & Choi, 2001).

성역할 태도는 1~4점 척도로 조사된 값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나타내는데 가사양육우위형(2.72점)이 여가우위형(2.39점)보다 더 근대적인 태도점수를 보였다. 가사양육우위형 다음으로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인 유형은 취약형으로 나타났다. 취약형의 경우 여가우위형보다 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는 점은 노동시간, 연령 등 개인적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취약형의 노동시간이 여가우위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 자녀양육시간이 적을 수 있으며, 아버지 연령이 여가우위형보다 높아

자녀의 연령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자녀양육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인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연령, 노동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 직업, 소득, 성역할태도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령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취약형에 속하는 비율이 낮아지는데 비해 가사양육중심형과 가사양육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0대와 40대 이상의 집단은 취약형(55.2%, 60.6%)의 분포가 20대 집단보다 특히 높았다. 이는 취업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연령 또한 어리며 자녀의 보살핌에 대한 요구가 커져 자녀양육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본 기존 결과와 일치한다(Nam & Yoo, 2006; Song, 2011).

자녀양육시간 유형별 노동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유형별로 노동시간의 평균을 보면 취약형이 주당 평균 44시간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가사양육형이 39시간, 가사양육중심형이 31시간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많을 경우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하는 가사 및 여가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 등을 더 많이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노동시간은 자녀양육시간에 부적 영향

Table 6.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y Mothers' Child Care Time Type (Unit: Frequency, %)

Variables	Classification	Vulnerable (N=417)	Household work · child care oriented (N=58)	Household work · child care (N=309)	X ² / F
Age	20~29	35(35.0)	10(10.0)	55(55.0)	16.573**
	30~39	328(55.2)	44(7.4)	222(37.4)	
	over 40	54(60.0)	4(4.4)	32(35.6)	
Education	high school	202(57.7)	22(6.3)	126(36.0)	6.132
	college	203(50.0)	34(8.4)	169(41.6)	
	over graduate school	12(42.9)	2(7.1)	14(50.0)	
Job type	managerial · professional	132(53.7)	22(8.9)	92(37.4)	1.851
	clerical	113(54.3)	13(6.3)	82(39.4)	
	service · sales	111(52.4)	15(7.1)	86(40.6)	
	simple skilled etc	61(51.7)	8(6.8)	49(41.5)	
Monthly income (in thousand won)	under 1,000	152(46.9)	29(9.0)	143(44.1)	4.712
	1,000~1,999	167(60.1)	15(5.4)	96(34.5)	
	2,000~2,999	63(54.3)	7(6.0)	46(39.7)	
	over 3,000	35(53.0)	7(10.6)	24(36.4)	
Weekly working hours(mean)		43.88a	31.12c	39.28b	16.488***
Gender role attitude(mean)		2.99	2.81	2.95	2.084

** $p < .01$, *** $p < .001$

Table 7. Differences in Time Deficit and Time Satisfaction by Child Care Time Type of Dual-earner Couples

Classification	Variables	Vulnerable	Household work · child care predominant	Leisure predominant	F
Husbands	time deficit	3.35	3.33	3.34	.035
	time satisfaction	3.06	3.11	3.09	.201
Classification	Variables	Vulnerable	Household work · child care oriented	Household work · child care	F
Wives	time deficit	3.51a	3.31b	3.42ab	3.538*
	time satisfaction	3.14	3.33	3.09	2.585

* $p < .05$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Huh, 1994b; Bianchi, 2000; Yoo & Choi, 2002).

3.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별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맞벌이부부의 시간부족감은 남편과 부인 모두 3점대로 보통(2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시간부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기혼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간부족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Cha, 2006; Cha, 2008). 자녀양육시간 유형별로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편의 경우 시간부족감은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형은 취약형(3.51점)

이고, 가장 적게 느끼는 유형은 가사양육중심형(3.31점)으로 나타났다. 취약형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44시간으로 다른 유형들보다 노동시간이 특히 더 많아 자녀양육시간을 많이 할애 할 수 없고, 긴 노동시간으로 시간부족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사양육중심형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1시간으로 자녀양육시간 유형 중 가장 적은 노동시간을 보이고, 다른 유형에 비해 자녀돌봄 및 가사공유시간 등을 많이 할애한 것으로 보아 시간부족감을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시간사용만족도는 1~5점으로 측정된 값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 3점대로 전반적으로 시간사용만족도 수준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사용만족도는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자녀양육시간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첫째, 맞벌이 남편의 경우 자녀돌봄시간은 평균 49분, 자녀와 함께한 가사노동시간은 39분, 자녀와 함께한 여가시간은 28분으로 자녀양육시간이 평균 1시간 56분이다. 맞벌이 부인의 경우 자녀돌봄시간은 127분, 가사공유시간은 106분, 여가공유시간은 34분으로 자녀양육시간이 4시간 27분이다. 부인의 경우 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한 가사활동은 각각 평균 2시간이상, 1시간이상으로 많고, 이 두 활동시간은 자녀양육시간의 87%를 차지한다. 남편과 비교할 때 부인이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 모두 전반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거나 남편과 부인 모두 여가공유시간은 세 영역 중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을 토대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을 유형화하면 남편은 취약형, 가사양육우위형, 여가우위형으로 분류되고, 부인은 취약형, 가사양육중심형, 가사양육형으로 분류된다. 남편과 부인 모두 취약형은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 모두 평균시간보다 적다. 남편의 가사양육우위형과 여가우위형은 자녀돌봄, 가사공유, 여가공유시간이 각각 평균값보다 많은 공통점이 있으나 가사양육우위형은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이 다른 유형들보다 특히 많고, 여가우위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여가공유시간이 세 유형 중 특히 길며 평균보다 6배 많은 특징이

있다. 부인의 가사양육중심형은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이 특히 길며 평균보다 3배 많고, 가사양육형은 자녀돌봄과 가사공유시간이 평균보다 1.4배 많으며 여가공유시간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셋째, 자녀양육시간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편의 경우 40대 이상의 집단이 다른 연령대보다 취약형이 많고 20대 집단은 가사양육우위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다. 고졸학력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취약형에 높은 분포를 보이고, 대졸이상 집단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사양육우위형과 여가우위형의 분포가 높은 특징이 있다. 취약형이 다른 유형보다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가사양육우위형은 노동시간이 짧고, 가장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인다.

부인의 경우에는 20대 집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취약형의 분포가 낮은 반면 가사양육형의 분포는 높고, 취약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주당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그 다음으로 가사양육형, 가사양육중심형의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다.

넷째,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라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는 남편의 경우 시간부족감, 시간사용만족도가 차이가 없으나 부인의 경우에는 시간부족감은 차이가 있고 시간사용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유형은 취약형(3.51점)이고, 가장 적게 느끼는 유형은 가사양육중심형(3.31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맞벌이 부인에 비해 남편의 자녀양육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는 자녀의 지적·사회적 발달을 촉진시키며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와 자녀와의 관계 증진 등 여러 가지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맞벌이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자녀양육의 분담 및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남편의 자녀양육참여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가정 내 아버지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남편의 3/4이상이, 부인의 절반이상이 취약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자녀양육시간은 남편 59분, 부인 136분으로 다른 유형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다수의 맞벌이 부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거나 자녀와 함께하는 가사 및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점을 알 수 있다. 이 집단들은 노동시간이 과도한 결과 전반적으로 자녀양육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하고 취약형의 주당 노동시간이 남편 55시간, 부인 44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탄력근무제도, 자녀의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가족친화제도는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거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의 실태가 낮고 가족친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확산시키고 정착화 시키기 위해 기업 및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인의 자녀양육시간 유형 중 시간부족감을 많이 느끼는 유형은 취약형이다. 장시간 노동하는 맞벌이 부인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양육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어 시간부족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즉 맞벌이 부인의 경우 많은 취업노동시간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매우 취약하지만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취업으로 인한 일-가정(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과중은 시간부족감을 더 높게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남편 및 기타 가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부인의 과중한 역할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부인의 수입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환경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여유를 증가시킬 수 있어 생활에 대한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가정내 가족원의 역할분담과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역할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9년 생활조사시간에서 최초로 조사된 “함께한 사람”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parental time)을 자녀양육시간으로 확장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유형별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낸 활동이 자녀돌봄, 가사 및 여가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활동에 대해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어떠한지, 또한 ‘함께한 사람’에 대한 문항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미취학자녀, 아동기, 청소년기의 자녀양육시간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자녀양육시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모든 활동에 대해 “함께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함께한 사람”항목을 미취학자녀 외에 아동기, 청소년기 등과 같이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생활시간조사와 같이 활

동별 주관적 복지감 항목이 추가되어 자녀와 함께한 활동별 주관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2013).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Bianchi, S. M., Mil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Bryant, W. K. & Zick, C. C.(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 227-237.
- Cawley, J. & Liu, F.(201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hood obesity: a search for mechanisms in time use data. *Economics & Human Biology*, 10(4), 352-364.
- Cha, S.(2006). A study on mother's time deficit and tiredness cognition in preschool children stage. *Natural Science (Daejeon University)*, 16(1), 145-159.
- Chalasan, S.(2007).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 and their time with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4(1), 93-117.
- Cha, S.(2008). A typology of mid-life adults' everyday life: an analysis of time diary.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1), 103-116.
- Cho, H. & Seo, J.(2009). The policy demand of the family sector for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61-81.
- Choi, K.(199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y of child and the child rearing behaviors and involvement of father.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4(2), 115-135.
- Chung, O. & Kim, K.(2003).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perceived the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on the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otiv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4), 105-114.
- Coverman, S. & Sheley, J. F.(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Craig, L. & Mullan, K.(2010). Shared family leisure and eating time in comparative perspectiv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10 Annual Meeting Program*, 1-19.
- Fedick, C. B., Pacholok, S., & Gauthier, A. H.(2005).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estimation of parental time: analysis of measure in a canadian time us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2(1), 67-87.
- Folbre, N.(2008). *Valuing children: Rethinking the economics of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Guryan, J., E. Hurst, & M. Dearnay.(2008).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time with childre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2(3), 23-46.
- Han, Y. & Yoon, S.(2009). The analysis of leisure time use of urban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2), 81-95.
- Hofferth, S. L. & Sandberg, J. F.(2000). Changes in american children's time. 1981-1997.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16(1), 1-27.
- Huh, K.(1994a). Determinants of fathers' child care time.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3), 63-70.
- Hun, K.(1994b). Determinants of householdwork and child care time of wives and husban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2(2), 90-105.
- Huh, K.(1997). The pattern of time allocation of husbands and wives: Based on the household production approach.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1), 319-337.
- Jang, M.(1994). *The effect of work rol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en on fathe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Jang, Y., Lee, K., & Choe, H.(2012).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ime and time pressures: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attitud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4), 195-211.
- Kalenkoski, C. M, Ribar, D. C. & Stratton, L. S.(2006).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parents' child care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ZA Discussion Paper No. 2441*, 1-44.
- Kang, R.(2000). The current trend in the studies of the role of the father: analysis on america and japan.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7), 153-165.
- Kang, I. & Kim, H.(2005). Time use and satisfaction leve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jeju island.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9(4), 1-19.
- Kim, H. & Yoo, A.(2009). Human development.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Kim, J.(2003). Women's labor in the economy of South Korea. Seoul: Hainaim.
- Kim, J.(2012). *A typology of dual-income family work-life by time allo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Kim, M.(1984). *A study on father's role and child's percep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O.(2012). A typology of leisure time with whom of the married.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3), 133-142.
- Kim, O., Han, Y., Lee, K., Cho, H., Lee, S. & Youn, Y.(2012). A typology of family shared time of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65-186.
- Kim, S., & Kim, S. & Lee, K.(2011). A qualitative study on dual earner families' work and family lives for ideal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1), 93-116.
- Kim, O. & Lee, K.(2009). Household work and time management. Seou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 Kim, O., Lee, K., Lee, Y., Cho, H., Han, Y., Kim, H. & Youn, Y.(2010). Meals, household work, leisure analysis with a focus on family shared time. 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final research report for 2010.
- Kim, O. & Park, E.(2013). Differences in leisure participation by types of leisure constraints for married employee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1), 241-263.
- Kooreman, P. & Kapteyn, A.(1987). A disaggregated analysis of the allocation of time within the household.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2), 223-249.
- Lamb, M. E.(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M. E. Lamb(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70.
- Lee, W.(2009). Working mothers' work-child rearing strain

- and their demand on back-up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4), 117-126.
- Lee, J. & Jung, I.(2005). The perception of parents on the eating habits and nutritional education of thei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7), 67-77.
- Lee, S. & Lee, K.(1998). A study on the time shared with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2), 123-146.
- Lee, S. & Lee, H.(2011). Analysis of time use of double income paid workers.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5), 81-96.
- Lee, Y. & Lee, S.(2007). Analysis of the time use of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having preschool children: centering on the data of the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4.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0(1), 19-25.
- Moon, S. & Kim, S.(1996). Human capital investment in children: by the employment status of housewife.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5), 49-66.
- Nam, S. & Yoo, H.(2006). Analysis of working wives' time according to market incom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5(6), 985-997.
- Osterbacka, E., Merz, J. & Zick, C. D.(2012). Human capital investments in childre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le of parent-child shared time in selecte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9(1), 120-143.
- Pääkkönen, H.(2008). Alone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5(1), 43-64.
- Park, M. & Baik, K.(1997). A study on time use and satisfaction with it of full time housewives.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5(6), 173-189.
- Sayer, L. C., Gauthier, A. H., & Furstenberg, F. Jr.(2004). Educational differences in parents' time with children: cross-national vari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152-1169.
- Song, Y.(2011). Changes in parental time spent with children.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n*, 4(2), 45-64.
- Shaw, S. M. & Dawson, D.(2001).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3(4), 217-231.
- Sung, J.(2006). Time alloca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Labour Policy Research*, 6(4), 1-29.
-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154.
- Yonhapnews.(2011). Dual-earner Couples 85% "The family is more biased to work".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15871>
- Yoon, C. & Lee, I.(1993). Degree of father's participation of child-rearing in relation to demographic variables, parents' sex-role stereotypes and conjugal power structur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1(1), 191-202.
- Yoon, J.(2010). The economic value of child care time. *Labor Review*, 64, 23-38.
- Yoon, S., Kim, H. & Koh, S.(2009). Needs and utilization of family-friendly work policies for the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1-21.
- You, S. & Choi, Y.(2002). An analysis of time use of adults and influencing factors on it: paid work, house work, child caring, leisure.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3(3), 53-68.

접수일 : 2013년 05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8월 01일